

차세대 성장동력 경쟁력 “기대이하”

현대연구원, 세계 최고수준 보다 1-4년 낙후 ... 사업화 지원방안 절실

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의 기술수준, 경제 기여도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.

현대경제연구원이 2월20일 발표한 <신성장동력 육성사업 어떻게 되고 있나>에 따르면, 2006년 현재 한국의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의 기술경쟁력은 세계 최고수준에 비해 1-4년 뒤떨어져 있어 2003년의 1-6년에 비해 향상됐으나 여전히 낙후된 상태이다.

2006년 현재 성장동력 사업별 세계 최고수준 대비 경쟁력 수준(시간적 격차)과 2003년 대비 개선정도는 디스플레이 95%(1.0년)에 5%p, 디지털TV·방송 94%(0.7년)에 9%p, 차세대이동통신 91%(0.9년)에 1%p, 지능형 홈네트워크 90%(1.0년)에 10%p, 지능형 로봇 86%(2.2년)에 21%p, 차세대반도체 84%(1.6년)에 24%p, 미래형 자동차 75%(4.0년)에 10%p, 디지털 콘텐츠·SW솔루션 81%(2.2년)에 10%p, 차세대전지 70%(3.0년)에 20%p, 바이오 신약·장기 70%(4.0년)에 10%p 등이다.

아울러 2004-06년 성장동력사업 특허출원 건수는 5368건으로 연구개발(R&D) 투자액 10억원당 2.3건으로 계산돼 국가 전체 산업의 6.3건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또 사업의 전체 부가가치액은 2006년 109조7000억원으로 2008년 목표치인 235조원의 46.7%에 그쳐 경제성장 기여도가 기대수준에 밀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.

2003-06년 사업별 연평균 부가가치 증가율은 미래형자동차 3.9%, 차세대반도체 10.1%, 차세대 이동통신 13.3% 등이었다. 동일기간 10대 성장동력사업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38.6%였으나 미래형자동차는 24.1%, 차세대 반도체는 18.6%, 차세대 이동통신은 19.8% 등에 그쳤다.

연평균 고용 증가율은 미래형자동차 4.8%, 디지털콘텐츠·SW솔루션 6.3%, 차세대 반도체 12.2%, 차세대이동통신 14.5%, 디스플레이 32.0%, 지능형로봇 32.6% 등이었다.

연구원은 신성장동력 사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로드맵의 재검토를 통해 사업추진 기간에 실현 가능한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.

또 통합투자 관리체제를 마련해 중복 과잉투자를 막고 성장동력 사업간 협력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이부형 연구위원은 “공장설립과 관련한 중앙·지방의 각종 규제를 우선적으로 완화하고 기술적 성과를 기업 등에 신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화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8/02/20>